

#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279**  
SEP 15 2023

**발간년월** 2023년 9월 15일(통권 제279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김 종 덕 **총괄·감수** 김 엄 지 **담당** 유 지 원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TEL +82-51-797-4766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극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러 정상회담 개최 결과</li> <li>- 중국, 조지아 아나클리아 항만 건설 사업 참여하나</li> </ul>
	중·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년 1~8월, 러시아 항만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현황</li> </ul>
	북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 노바텍社, 새로운 북극 에너지 프로젝트 실행 준비</li> </ul>

## 주요 통계

- 2023년 1~6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액체화물)
- 2020년~2023년 6월 러시아 역내 화물 운송량
- 2020년~2023년 6월 러시아 역내 운송수단별 화물 운송량



## 주요 동향



### 북·러 정상회담 개최 결과

그림. 2023년 9월 13일 러,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발사장에서 만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모습



자료: CNN 2023년 9월 13일 자.

#### ■ 러시아 우주기지에서 북·러 정상회담 전격 개최<sup>\*)</sup>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9월 13일, 러시아 아무르 (Amur)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5시간 정도 정상회담을 진행함
- 이번 정상회담은 러시아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 2019년 4월 25일 블라디보스토크 (Vladivostok) 극동연방대에서의 첫 만남 이후 4년 만에 재회하게 되었음
-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북-러 간 경제협력, △인도주의적 문제, △지역 상황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군사 협력 의제에 관한 언급은 피함
- 이번 정상회담 의제는 북한의 탄약, 포탄과 같은 재래식 무기와 러시아의 식량·에너지·비료 교환 문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데, 북한의 방위 핵심 인사가 군 및 군 과학기술 분야 인사임과 동시에 군부 실세인 만큼 이런 예상에 무게감이 실리게 됨. 아울러, 실제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위성과 로켓 발사를 도울 것이라고 기자의 질문에 응답해 군사 협력 '가능'

성'은 언급한 바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국민 만찬에서 푸틴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건배했고, 김 위원장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러시아를 지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등 양측은 양국의 주권, 안보,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헤게모니 세력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조건 없는 지지 의사를 드러냄

## ■ 정상회담 진행에 대한 대한민국, 미국, 중국 등 주변국의 시각<sup>b)</sup>

- 북한의 방러 사업단에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 박태성 당 비서, 조춘룡 군수산업부장 등이 동행하는 것을 두고 북·러 간 무기 거래 의도가 있다는 논란이 지배적인 가운데, 한국은 유엔의 제재를 받는 북한과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을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실 의견이 발표된 바 있음
- 미국 국무부 매튜 밀러(Matthew Miller) 대변인도 미국은 북한의 러시아 전쟁 지원 단체에 대한 제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음
- 반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인 마오닝(Mao Ning)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 도착함에 따라 북·러가 더 깊은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며 이들의 만남을 객관적으로 언급한 한편, 김 위원장이 중국을 언제 방문할지에 대한 별도 언급은 하지 않았음
- 류귀중(劉國家) 길림성(吉林省)의 전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북·중 관계는 경제협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반해 북·러 관계는 군사 협력에 방점이 있다고 분석하는 등 북러간 밀착화가 글로벌 안보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함

채수란 전문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9orchid7@kmi.re.kr/051-797-4790)

### 참고자료

- a) <https://edition.cnn.com/2023/09/12/asia/kim-jong-un-putin-meeting-russia-intl-hnk/index.html>; <https://apnews.com/article/north-korea-russia-kim-putin-missile-0d70f5190df1088ebe53e8ca19f8e9c9> (2023.9.13. 검색)
- b) <https://apnews.com/article/north-korea-russia-kim-putin-07221c9ba59e042372d9a50e756c2d79>; <https://www.reuters.com/world/north-koreas-kim-jong-un-russia-amid-us-warnings-not-sell-arms-2023-09-12/>; <https://asia.nikkei.com/Politics/International-relations/North-Korea-s-Kim-Jong-Un-enters-Russia-for-summit-with-Putin>; <https://www.channelnewsasia.com/asia/china-seeks-north-korea-deeper-ties-russia-3764046>;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3/09/113\\_358706.html](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3/09/113_358706.html) (2023.9.13. 검색)

# 중국, 조지아 아나클리아 항만 건설 사업 참여하나

그림. 아나클리아 심해 항만 건설 예정지



자료: <https://sputnik-georgia.ru/20230906/kitay-zainteresovan-v-stroitelstve-glubokovodnogo-porta-v-anakliya---posol-281987287.html>

## ■ 중국, 조지아 내 인프라 연결 사업 참여에 관심 표명

- 저우치엔(Zhou Qian) 주조지아 중국대사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 1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 참석하여 “중국은 아나클리아(Anaklia) 심해항만 건설을 포함한 조지아 내 인프라 건설 사업 참여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 이라클리 가리바쉬빌리(Irakli Garibashvili) 조지아 총리는 이미 지난 7월 말 개최된 조지아-중국 비즈니스 포럼에서 중국 투자자들에게 아나클리아 심해항만 사업 개요와 그 이점을 설명했고, 아울러 조지아-중국 관계가 전략적 파트너십 단계로 들어섰다고 평했음
- 이번 일대일로 10주년 기념 학술회의는 주 조지아 중국대사관이 주관한 행사로서, 주요 전문가 및 유관기관의 인사들이 참여하였음.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중국 현대화의 길과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음
- 한편 1992년 양국 수교가 시작된 이래, 양국은 2017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 양국 교역량은 전년 대비 25.8%가 증가한 18억 달러를 기록했음

## ■ 지지부진했던 아나클리아 항만 사업...중국의 참여로 새로운 활로를 찾을 것으로 예상

- 가리바쉬빌리 총리는 학술 행사장에서 투자자 유치에 줄곧 어려움을 겪었던 아나클리아 항만 사업이 완공을 위한 국영기업 신규 설치 과정을 거치며 현재 사업 진행에 탄력을 얻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 아울러 총리는 중국 사업체들이 현재 일대일로와 중앙회랑(트랜스카스피안 회랑) 프로젝트 참여에 흥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조지아에게 프로젝트와 관련된 환경이 좋아진다면, 중국 기업들은 아나클리아 항 건설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참여에 문제없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음
- 이는 아나클리아 항 사업에 조지아가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1,500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는 대형 선박의 수용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바투미(Batumi) 항과 포티(Poti) 항은 대형 선박을 수용할 시설이 부족한 실정임
- 아나클리아 항 사업은 2016년 시작되고 미국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출범했음에도 자금 융통 문제와 소송으로 인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이루지 못해왔음. 2021-22년에 들어 투자자 입찰 공고를 다시 냈고, 2023년 3월 '아나클리아 항만 공사'가 설립되었으며, 가을에 착공할 예정임

조용성,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  
(mirinae2929@gmail.com)

---

### 참고자료

- a) <https://sputnik-georgia.ru/20230906/kitay-zainteresovan-v-stroitelstve-glubokovodnogo-porta-v-anakliya---posol-281987287.html>(2023.9.16. 검색)

# ‘23년 1~8월, 러시아 항만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현황

그림. 러시아 항만에 컨테이너 화물을 하역하는 모습



자료: <https://morvesti.ru/news/1679/104855/>

## ■ 지난 8개월간 러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10% 증가

- 모르센터-테크(Morcenter-TEK, 화물운송계획 전문업체)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1~8월 러시아 전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320만 TEU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했음
- 1~8월 러시아 국내 컨테이너 환적 물동량은 전년 대비 26%로 증가하여 69.6만 TEU에 달했으며, 수입 컨테이너 물동량은 22.7%로 증가하여 1,340만 TEU에 도달했음
- 반면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은 6%로 감소하여 1,130만 TEU로 줄었으며, 환적 컨테이너 물동량은 20% 감소하여 7.5만 TEU에 달했음
- 극동지역 컨테이너 물동량은 17.8%로 증가하여 1,720만 TEU로 늘었음. 발트해는 73.9만 TEU로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하였고, 아조프-흑해는 33.4%로 증가하여 총 67.3만 TEU를 기록했음
- 그 밖에, 북극해는 6.9%로 감소하여 10.5만 TEU로 줄었고, 카스피해는 전년 대비 2.3배로 증가하여 7.9천 TEU에 달했음

- 특히, 지난 8월 한 달의 러시아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42.2만 TEU로 전년 대비 31.9% 증가하는 고무적인 성과를 거둠
- 2022년 러시아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은 431만 TEU로 전년 동기 대비 23%가 감소하였으며, 수출은 166만 TEU(-27%), 수입은 167만 TEU(-30%), 환적은 13만 TEU(-35%), 카보타지는 85만 TEU(+9%)로 나타났음. 극동지역 물동량은 230만 TEU(+8%), 발트해 물동량은 100만 TEU(-57%)를 기록한 바 있음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콘스탄티노바 아나스타시야 러시아 전문위원,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 국제협력부  
(anastasia.konst@mail.ru)

---

#### 참고자료

- a) <https://morvesti.ru/news/1679/104855/>(2023.09.13. 검색)
- b) <https://morvesti.ru/news/1679/104876/>(2023.09.13. 검색)

# 러 노바텍社, 새로운 북극 에너지 프로젝트 실행 준비

그림. LNG 플랜트 건설이 예정된 콜라 만(Kola Bay) 전경



자료: <https://www.rcinet.ca/eye-on-the-arctic/2023/09/05/major-energy-project-in-arctic-being-lobbied-by-natural-gas-company-novatek/>

## ■ 푸틴 대통령, 무르만스크 LNG 프로젝트의 이행에 눈길을 돌려

- 푸틴 대통령은 지난 9월 4일 ‘무르만스크(Murmansk) LNG’ 프로젝트 실행 문제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여, 지난 6월 러시아 국영기업인 노바텍(Novatek)이 발표한 신규 프로젝트인 무르만스크 LNG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를 진행함

- ‘무르만스크 LNG 프로젝트’는 무르만스크 지역 당국이 수 십년 간 러시아 연방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자 의제가 되기를 원했던 프로젝트 중 하나로,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북극 에너지 자원 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자 러시아 노바텍社가 콜라 만(Kola Bay)에 LNG 플랜트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알리며 구체화되었음
- 무르만스크 LNG 프로젝트는 1,300km 길이의 가스 파이프라인을 무르만스크로 연결하고 콜라 만에 부유형 LNG 플랜트를 건설하는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이며 연간 2,040톤 규모의 LNG 저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동 프로젝트를 통해 콜라 만에 LNG 플랜트를 건설함은 물론, 유럽 러시아의 중심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 근처에 위치한 가스 보급 허브인 볼호프(Volkhovsky) 지역을 연결하는 사업이 실현될 예정임
- 레오니드 미헬손(Leonid Mikhelson) 노바텍 회장은 2024년 8월에 건설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알렸고, 총 3개 LNG 생산 라인이 건설될 예정으로 첫 번째 라인은 2027년 완공될 예정임

- 무르만스크 LNG 프로젝트는 무르만스크 지방 정부와 함께 노바텍사가 오랜 기간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로비를 연방 정부 전체에 걸쳐 진행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푸틴 대통령의 지원을 받고자 노력해 옴
- 푸틴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는 노바텍 대표 레오니드 미헬손과 연방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이들 중에는 부총리 알렉산드로 노박(Aleksandr Novak)과 대통령 고문 막심 오레슈킨(Maksim Oreshkin)이 포함됨
- 아울러 이 회의는 푸틴 대통령이 무르만스크 지역을 직접 방문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개최되었으며, 지역 방문 당시 대통령은 콜라 만 상공에서 무르만스크 LNG 플랜트가 건설될 부지를 헬기를 타고 둘러봤음. 그에 따라 무르만스크 LNG 프로젝트가 대통령과 연방 정부의 지원을 힘입어 진행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쏟아지고 있음

## ■ 노바텍, 프로젝트 자금조달을 위한 중국 투자자들의 투자 가능성 시사

- 동 프로젝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산(産) 천연가스가 유럽에 의해 금수조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새로운 대안적 수출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풍부한 가스 재고량을 확보할 수 있게 함
- 북극 지역은 지역난방 시스템은 비싸고 오염이 심한 연료유(Mazut)에 의존 중이므로, 동 사업을 통해 건설될 파이프라인 및 LNG 생산은 북극 지역으로의 LNG 보급에 도움을 줄 것임

박예나 전문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yena719@kmi.re.kr/051-797-4763)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 참고자료

- <https://www.rcinet.ca/eye-on-the-arctic/2023/09/05/major-energy-project-in-arctic-being-lobbied-by-natural-gas-company-novatek/> (2023.09.15. 검색)
- <https://thebarentsobserver.com/en/arctic-lng/2023/09/projected-lng-plant-murmansk-now-putins-table> (2023.09.15. 검색)
- <https://thebarentsobserver.com/en/arctic-lng/2023/02/construction-starts-new-murmansk-lng-hub> (2023.09.15. 검색)
- <https://thebarentsobserver.com/en/arctic-lng/2023/06/chinese-investors-could-finance-murmansk-lng> (2023.09.15. 검색)
-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news/72195> (2023.09.15. 검색)



표. 2023년 1~5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화물 및 액체화물)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물동량	전년 동기 대비**	물동량	전년 동기 대비	물동량	전년 동기 대비
극동지역	64.9	9.4%	34	6.9%	98.9	8.5%
북극해	12.1	18.7%	29	-4.9%	41.1	1%
발트해	47.4	17.9%	62.2	-0.5%	109.6	6.7%
아조프-흑해	60.2	35.6%	66.4	11.3%	126.6	21.7%
카스피해	1.6	76.2%	1.2	2.7%	2.8	31.4%
합계	186.2	20.1%	192.8	3.8%	379	11.2%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올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베츠키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 벨스크, 흘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카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안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 전년 동기 대비 2023년 1~5월 기준

정다현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dhj82@kmi.re.kr/051-797-4766)

## 참고자료

a) [https://portnews.ru/news/348763/\(2023. 7. 7. 검색\)](https://portnews.ru/news/348763/(2023. 7. 7. 검색))

표. 2020년~2023년 5월 러시아 역내 화물 운송량

(단위: 천 톤, %)

	분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체 운송량	2020년	567,509.2	580,010.5	613,588.0	579,480.8	605,641.0	637,823.0	737,245.4	759,564.1	759,496.2	706,375.0	652,307.9	646,594.1
	2021년	543,821.8	549,086.1	615,080.0	588,678.7	637,039.2	687,272.0	761,549.4	762,800.5	745,276.9	734,333.4	704,813.7	721,620.2
	전년 대비 증감률(%)	-4.2	-5.3	0.2	1.6	5.2	7.8	3.3	0.4	-1.9	4.0	8.0	11.6
	전월 대비 증감률(%)	-15.9	1.0	12.0	-4.3	8.2	7.9	10.8	0.2	-2.3	-1.5	-4	2.4
	2022년	555,636.9	550,577.3	615,672.0	579,201.3	632,077.9	678,164.9	740,885.3	753,309.5	728,492.0	723,781.2 <sup>3)</sup>	700,038.7 <sup>3)</sup>	701,495.2 <sup>3)</sup>
	전년 대비 증감률(%)	2.2	0.3	0.1	-1.6	-0.8	-1.3	-2.7	-1.2	-2.3	-1.4	-0.7	-2.8
	전월 대비 증감률(%)	-23	-0.9	11.8	-5.9	9.1	7.3	9.2	1.7	-3.3	-0.6	-3.3	0.2
	2023년 <sup>3)</sup>	591,141.3	596,014.0	643,218.5	609,720.2	633,414.9							
	전년 대비 증감률(%)	6.4	8.3	4.5	5.3	0.2							
	전월 대비 증감률(%)	-16.2	0.8	7.9	-5.2	3.9							
상업화물 운송량	2020년	310,640.7	314,549.0	332,753.5	304,039.5	306,417.9	302,260.4	329,721.0	339,367.9	337,709.2	338,718.0	329,493.3	338,860.1
	2021년	304,340.5	295,825.0	336,610.2	324,025.6	342,514.6	346,501.7	353,630.4	353,522.2	347,324.0	351,155.5	338,860.7	346,887.4
	전년 대비 증감률(%)	-2	-6	1.2	6.6	11.8	14.6	7.3	4.2	2.8	3.7	2.8	2.4
	전월 대비 증감률(%)	-10.2	-2.8	13.8	-3.7	5.7	1.2	2.1	0.0	-1.8	1.1	-3.5	2.4
	2022년	310,521.8	299,687.6	333,240.0	315,358.7	333,932.4	336,779.3	345,565.4	346,972.7	334,711.9	344,703.6 <sup>3)</sup>	336,033.1 <sup>3)</sup>	340,444.0 <sup>3)</sup>
	전년 대비 증감률(%)	2.0	1.3	-1.0	-2.7	-2.5	-2.8	-2.3	-1.9	-3.6	-1.8	-0.8	-1.9
	전월 대비 증감률(%)	-10.5	-3.5	11.2	-5.4	5.9	0.9	2.6	0.4	-3.5	3.0	-2.5	1.3
	2023년 <sup>3)</sup>	322,874.8	318,321.2	343,089.1	319,001.4	326,344.8							

	전년 대비 증감률(%)	4.0	6.2	3.0	1.2	-2.3							
	전월 대비 증감률(%)	-6.2	-1.4	7.8	-7	2.3							
파이프 라인 수송량을 제외한 상업화물 운송량	<b>2020년</b>	209,551.8	219,372.0	236,313.5	215,113.1	228,394.3	228,444.7	251,549.3	257,700.8	254,995.4	250,524.5	236,376.0	234,758.1
	<b>2021년</b>	199,321.8	199,857.6	235,731.0	232,670.2	250,470.9	257,678.8	264,845.0	264,019.9	256,877.4	255,601.8	242,134.3	240,636.6
	전년 대비 증감률(%)	-4.9	-8.9	-0.2	8.2	9.7	12.8	5.3	2.5	0.7	2.0	2.4	2.5
	전월 대비 증감률(%)	-15.1	0.3	17.9	-1.3	7.7	2.9	2.8	-0.3	-2.7	-0.5	-5.3	-0.6
	<b>2022년</b>	206,223.4	205,926.8	232,022.0	228,758.7	247,399.8	254,427.4	264,476.6	266,103.3	256,458.5	259,320.1 <sup>3)</sup>	246,081.6 <sup>3)</sup>	238,945.6 <sup>3)</sup>
	전년 대비 증감률(%)	3.5	3.0	-1.6	-1.7	-1.2	-1.3	-0.1	0.8	-0.2	1.5	1.2	-0.7
	전월 대비 증감률(%)	-14.3	-0.1	12.7	-1.4	8.1	2.8	3.9	0.6	-3.6	1.1	-5.5	-2.5
	<b>2023년<sup>3)</sup></b>	220,710.8	228,027.3	249,805.5	233,453.2	244,227.1							
	전년 대비 증감률(%)	7.0	10.7	7.7	2.1	-1.3							
	전월 대비 증감률(%)	-9.1	3.3	9.6	-6.5	4.6							

정다현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dhj82@kmi.re.kr/051-797-4766)

참고자료

a) [https://rosstat.gov.ru/statistics/transport\(2023. 7. 7. 검색\)](https://rosstat.gov.ru/statistics/transport(2023. 7. 7. 검색))

표. 2020년~2023년 5월 러시아 역내 운송 수단별 화물 운송량

(단위: 천 톤)

운송 수단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철도 (직재 화물 기준)	2020	100,295.7	99,493.2	107,099.1	100,912.3	100,586.3	97,163.7	103,805.9	108,131.7	105,293.4	109,920.7	104,818.2	107,106.7	
	2021	101,227.4	96,752.4	109,442.8	107,848.9	110,947.6	107,092.0	108,122.2	109,128.3	106,511.6	110,406.0	108,086.0	108,528.4	
	2022	104,219.9	97,206.1	106,793.9	102,497.8	104,740.0	100,154.9	102,184.0	103,793.9	100,957.7	107,173.1 <sup>3)</sup>	103,718.1 <sup>3)</sup>	102,916.1 <sup>3)</sup>	
	2023 <sup>3)</sup>	99,413.9	97,521.0	109,358.0	105,806.7	106,950.3								
차량 운송 화물	합계	2020	361,786.6	381,410.2	405,244.6	383,623.0	411,586.1	450,419.6	536,922.8	552,163.2	554,253.6	492,837.8	444,036.6	430,397.2
		2021	334,004.6	353,223.3	400,100.3	384,111.9	420,149.2	473,292.1	546,076.3	545,704.4	529,347.9	512,955.7	489,896.9	501,650.3
		2022	343,416.5	355,487.9	403,791.3	384,496.0	426,031.3	477,220.4	536,793.0	546,992.1	530,399.8	514,358.0 <sup>3)</sup>	494,298.1 <sup>3)</sup>	492,320.9 <sup>3)</sup>
		2023 <sup>3)</sup>	385,139.3	404,606.7	435,673.3	411,477.9	429,024.6							
	상업 화물	2020	104,918.1	115,948.7	124,410.1	108,181.7	112,363.0	114,857.0	129,398.4	131,967.0	132,466.6	125,180.8	121,222.0	122,663.2
		2021	94,523.3	99,962.2	121,630.5	119,458.8	125,624.6	132,521.8	138,157.3	136,426.1	131,395.0	129,777.8	123,943.9	126,917.5
		2022	98,301.4	104,598.2	121,359.3	120,653.4	127,885.8	135,834.8	141,473.1	140,655.3	136,619.7	135,280.4 <sup>3)</sup>	130,292.5 <sup>3)</sup>	131,269.7 <sup>3)</sup>
		2023 <sup>3)</sup>	116,872.8	126,913.9	135,543.9	120,759.1	121,954.5							
해상 운송	2020	1,871.2	1,657.9	1,638.8	1,633.9	2,327.2	1,582.5	1,949.0	2,158.3	2,625.6	2,508.8	2,584.1	2,152.8	
	2021	1,467.0	1,216.8	1,851.1	2,178.1	2,218.6	1,565.2	2,115.4	2,217.4	3,042.9	1,638.4	1,745.8	2,182.9	
	2022	1,581.4	2,031.3	1,662.5	1,857.4	2,549.8	2,209.1	3,043.2	3,073.0	1,922.1	2,366.0 <sup>3)</sup>	2,567.0 <sup>3)</sup>	2,692.0 <sup>3)</sup>	
	2023 <sup>3)</sup>	2,730.3	2,213.8	2,794.5	2,799.4	2,782.7	3,106.2							
내륙수운 <sup>1)</sup>	2020	2,386.1	2,202.3	3,064.0	4,304.4	13,028.3	14,750.6	16,304.0	15,348.5	14,505.8	12,800.3	7,624.8	2,706.3	

	<b>2021</b>	2,003.8	1,825.7	2,685.8	3,064.2	11,558.8	16,381.4	16,327.8	16,125.3	15,799.8	13,645.9	8,218.6	2,859.3
	<b>2022</b>	2,005.4	1,993.4	2,172.5	3,720.0	12,192.6	16,193.7	17,738.2	18,538.0	16,916.6	14,457.5 <sup>3)</sup>	8,459.0 <sup>3)</sup>	2,016.7 <sup>3)</sup>
	<b>2023<sup>3)</sup></b>	1,661.9	1,344.4	2,071.5	4,068.9	12,180.8							
<b>항공<sup>2)</sup></b>	<b>2020</b>	80.7	69.9	101.5	80.8	89.5	90.9	92.0	95.3	104.0	113.9	126.9	129.1
	<b>2021</b>	100.3	100.5	120.8	120.2	121.3	118.4	122.3	122.8	128.1	133.7	140.0	148.5
	<b>2022</b>	115.3	97.8	33.8	30.1	31.6	34.9	38.1	43.1	42.4	43.1 <sup>3)</sup>	45.0 <sup>3)</sup>	51.1 <sup>3)</sup>
	<b>2023<sup>3)</sup></b>	31.9	34.2	37.6	35.8	35.3							
<b>파이프라인<sup>4)</sup></b>	<b>2020</b>	101,088.9	95,177.0	96,440.0	88,926.4	78,023.6	73,815.7	78,171.7	81,667.1	82,713.8	88,193.5	93,117.3	104,102.0
	<b>2021</b>	105,018.7	95,967.4	100,879.2	91,355.4	92,043.7	88,822.9	88,785.4	89,502.3	90,446.6	95,553.7	96,726.4	106,250.8
	<b>2022</b>	104,298.4	92,025.3	102,953.5	86,600.0	86,532.6	82,351.9	81,088.8	80,869.4	78,253.4	85,383.5 <sup>3)</sup>	90,951.5 <sup>3)</sup>	10,1498.4 <sup>3)</sup>
	<b>2023<sup>3)</sup></b>	102,164.0	90,293.9	93,283.6	85,548.2	82,117.7							

- 1) 내륙수운~해상 연결 운송과 같은 선박을 활용한 복합운송 포함
- 2) 러시아 연방 항공운송청(Federal Air Transport Agency) 자료 기반 수치
- 3)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자포리자 및 헤르손 주에 대한 통계 수치 제외
- 4) 러시아 연방 통계청 원자료에서 세부 항목에 대한 통계 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함에 따라, 총합계 수치만 공개함

정다현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dhj82@kmi.re.kr/051-797-4766)

#### 참고자료

a) [https://rosstat.gov.ru/statistics/transport\(2023. 7. 7. 검색\)](https://rosstat.gov.ru/statistics/transport(2023. 7. 7. 검색))